

남한산성 축성의 시작과 끝

남한산성의 역사적 성격/49

쌓고 고치기를 거듭한 산성/55

산성을 지킨 사람과 필요한 물자/61

성곽과 각종 문/65

산성의 방어시설/76

남한산성 축성의 시작과 끝

남한산성의 역사적 성격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급소

남한산성은 하남시·광주군·성남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성의 대부분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성벽은 청량산(479.9m)을 주봉으로 하여 북쪽으로 연주봉(466m), 동쪽으로 망월봉(502m)과 별봉(514m), 남쪽으로 몇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여 쌓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



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았다. 성벽의 바깥쪽은 급경사를 이루는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고도 350m 내외의 넓고 평탄한 분지를 이룬 까닭에 성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방어하기는 수월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서로 길쭉하고 넓은 성내부에는 10여석의 벼를 파종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이 있어, 성내에서 식량생산이 가능하고 45개의 연못과 80여개의 샘이 있는 까닭에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여 많은 인원이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뿐만 아니라 성내의 물은 한곳으로 모여들어 수문을 통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산성리에서 엄미리에 이르는 약 8km 구간이 침식협곡을 이루고 있어 성 안으로의 물자 수송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또한 남한산성은 한강변에 형성된 넓은 충적대지와 팔당에서 한강하류에 이르는 넓은 수계가 가시권에 속하며, 한강 이북 지역의 아차산 일대와 불암산과 인왕산까지도 바라다 보인다.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의 줄기는 남쪽으로 길게 뻗어 동서 교통을 차단하고 북쪽으로 뻗어나간 줄기는 한강 남쪽의 평야지대를 동서로 구분한다. 그 서북쪽은 백제의 왕도 한성의 중심지였으며 몽촌토성·풍납토성·석촌동적석총 등이 있는 풍납동과 방이동 일대이다. 동북쪽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신주와 한산주 및 광주군의 읍치가 있었던 하남시춘궁동 일대이다. 모두 남한산성으로부터 5km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백제왕도
한성의 중심지

도로망을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서쪽에는 좌로(左路) 또는 중로(中路)라고 불린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다. 또한 낙동강으로부터 연결된 내륙수운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산성 일대는 남쪽으로부터 한양도성으로 가거나, 북쪽으로부터 한강이남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길목의 하나이고 한강유역의 장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삼국시대부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온 급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백제왕도로서의 가능성

남한산성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견해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

성남쪽에서 본
남한산성 원경

되었다.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하북 위례성-하남위례성-한산-한성 등 여러번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사람들은 남한산성의 전략적인 입지조건과 수차에 걸친 백제의 천도기사로 인해 어느 때부터인가 남한산성이 백제의 왕도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대동야승(大東野乘)』·『연려실기술(練藝室記述)』·『여지도서(輿地圖書)』·『대동지지(大東地志)』 등 대부분의 조선시대 지지자료는 남한산성이 백제의 고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의 저자인 홍경모(洪敬謨)는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애초부터 한산 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건만 세상사람들이 사실을 살피지 아니하고 곧장 이르기를 백제의 고도는 남한산에 있으며 남한산성은 온조가 쌓은 것이라고 하는데 백제사는 기록이 소략하여 문헌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온조왕의 옛 성임을 정확히 알겠는가? 그래서 특히 첫머리에 써서 의심스러운 바를 알리고 성은 산아래 있었고, 그 산위에 있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는 백제도읍이 지금의 검단산 아래인 광주의 고읍에 있으며, ‘온조의 고성’은 이성산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제의 왕도

이성산성과
교산동유적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남시의 이성산성과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어 온 교산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백제 한성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이성산성에서는 이미 7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성내에서는 10여 동에 달하는 대규모의 건물지와 저수지, 신안유적 외에 많은 양의 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신라 한산주의 치소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하남시 교산동유적도 최근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백제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이후의 광주부의 객사건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남한산성과 광주고읍이 있었던 춘궁동 일대 및 이성산성 일대로 온조의 고도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의 주장성(晝長城)과 그 규모

주장성의 규모

다음으로는 남한산성이 신라의 주장성일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문무왕 12년(672)조에는 “한산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이다 (築漢山晝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를 도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지배야욕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신라는 물러서지 않고 임진강유역과 서해안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당나라와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산에 주장성을 축조하였다. 주장성은 당시 신라가 쌓은 성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주장성의 축조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이후 한산이라고 불린 지역은 한강 이남의 광주·하남에 해당된다. 당시의 한산지역에 남아있는 산성으로는 남한산성이 있고, 북쪽으로 5km 지점에 이성산성(둘레 1,653m)이 있으며, 서쪽으로 9km 지점에는 대모산성(둘레 567m)이 있을 뿐이다.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둘레가 4,360보에 달하는 성은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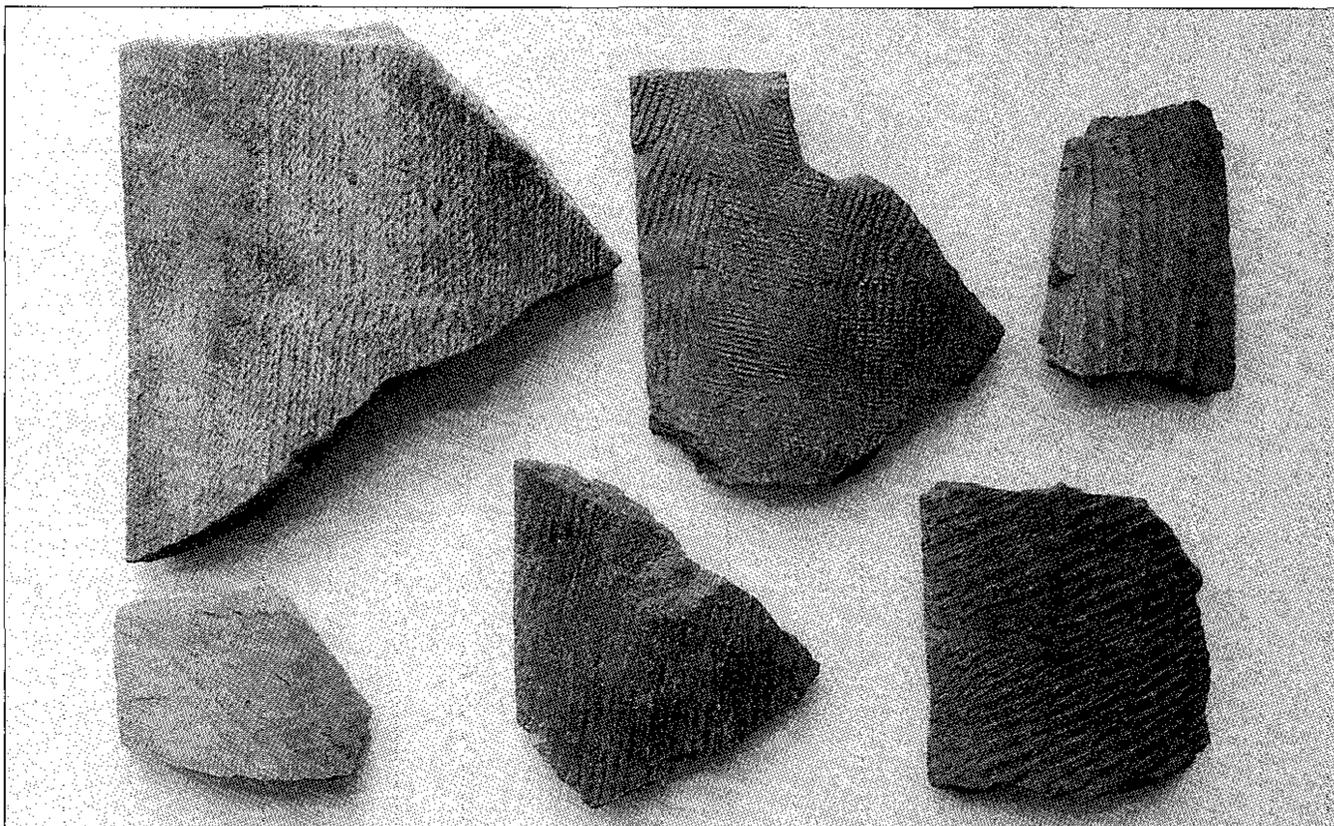
남한산성이 신라 주장성이라는 견해는 이미 조선 초기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선시대 지지자료에서 언급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남한산성 행궁지

기단 퇴적토속에서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남한산성은 신라 주장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내의 지표에서 발견되는 삼국시대의 유물의 수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그것은 국력을 기울여 쌓은 주장성이지만 산성이 해발 400m가 넘는 고지에 있고, 규모가 큰 만큼 방어와 관리에 많은 인력과 경제력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의 위협이 종식된 이후에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주장성은 조선시대에 수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2/3정도 파괴되기는 했지만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석축 성벽의 상당부분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문헌에 보이는 주장성을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삼국사기』에는 성의 둘레가 4,360보라고 하였다. 보통 1보는 6척으로 환산되므로 삼국사기가 발간된 당시의 척도를 송척(1척=31cm)이라고 한다면 주장성의 전체 둘레는 4,360보×6척×31cm로 8,109.6m에 달한다. 이는 최근 측량을 통하여 밝혀진 용성을 제외한 남한산성 원성의 수평거리 7,545m와 비교할 때 성벽의 고저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인조대의 축성시 “옛 터를 따라 남한산성을 다시 쌓게 하였다”는 남한지의 기록내용은 이러



행궁 출토
삼국시대 와편

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반면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주장성의 규모를 3,993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대의 영조척은 한자가 31.2cm이므로 성 둘레는 7,475m이다. 『삼국사기』의 보계치에 비해 600m 정도 차이가 있다.

이후 17세기 들어 인조대에 개축한 남한산성의 규모는 6,297보이다. 이는 주척(周尺)으로 측정한 것이며, 주척의 길이를 21.5cm로 할 때 전체 둘레는 8,123m에 달한다. 이것은 선조때에 포백척(布帛尺)으로 17,400척이라 한 것과 비교하면 포백척의 단위길이를 46.73cm로 하면 전체 둘레는 8,131m로서 주척으로 환산한 보계치와 거의 같다. 이러한 기록자료를 통해 볼 때 신라 주장성은 인조때에 수축한 남한산성의 원성과 거의 같은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남한산성

광주성(廣州城)

고려시대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 묘지명(李世華 墓地銘)에 보면 1231년 몽고병의 1차 침입시 광주군민들은 ‘광주성(廣州城)’으로 피하여 몽고군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며, 1232년 2차 침입시에도 살례탑(撒禮塔)이 이끄는 몽고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왔으나 이세화가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광주성은 읍치에서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민들이 들어가 방어하기 유리한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주요 산성으로는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이 있다. 그중 이성산성은 6세기 중엽 신라에 의하여 축성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성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작고 해발 209m 정도여서 공격적 전진기지이자 행정중심의 성이지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 장기간 농성(籠城)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성내부 면적이 넓고 많은 적을 상대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성내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화편으로 보아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광주성으로 기록된 성은 남한산성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세화 묘지명에는 광주성에 대하여 임금이 의지하는 ‘남방의 요충지’로서, 몽고군의 침입시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산성은 고려시대에도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인 개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는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 10만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키자 공민왕은 안동으로 파천하는 상황속에서 광주에 수레가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광주군민이 올라간 산성도 아마 남한산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록자료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에는 남한산성이 평상시에 많은 주민과 군사들이 거주하며 방어하는 형태의 성이 아니라 외침이 있을 경우 한시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쌓고 고치기를 거듭한 산성

남한산성 수축론의 대두

전략적 거점으로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부각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10년(1410)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 논의가 시작되며, 세종 1년(1418)에도 남한산성을 수축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북쪽 국경 부근의 4군 6진의 진보방어와 함께 왜구 창궐 이후 연해 읍성과 산성중심의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정을 반영한다.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남한산성’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선조 때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산성은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 용인의 석성산성(石城山城)과 함께 수도 서울을 수호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선조 29년(1596)에는 승장 유정(惟政)이 거느린 승군 60여 명을

남한산성이란
명칭의 등장

남한산성에 보내어 산성의 수비와 앞으로의 축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적도 있었다.

이듬해 발생한 정유재란으로 왜군이 다시 침입하자 남한산성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유성룡(柳成龍)은 경기지방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남한산성에 경기도 백성을 이주시켜 농사는 물론 산성 수비까지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조는 남한산성의 형세 파악과 수축방안을 수립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동문과 남문, 서구문의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조 36년(1603)에 남한산성의 수축론이 다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에서 인력의 부족과 수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여 산성 수축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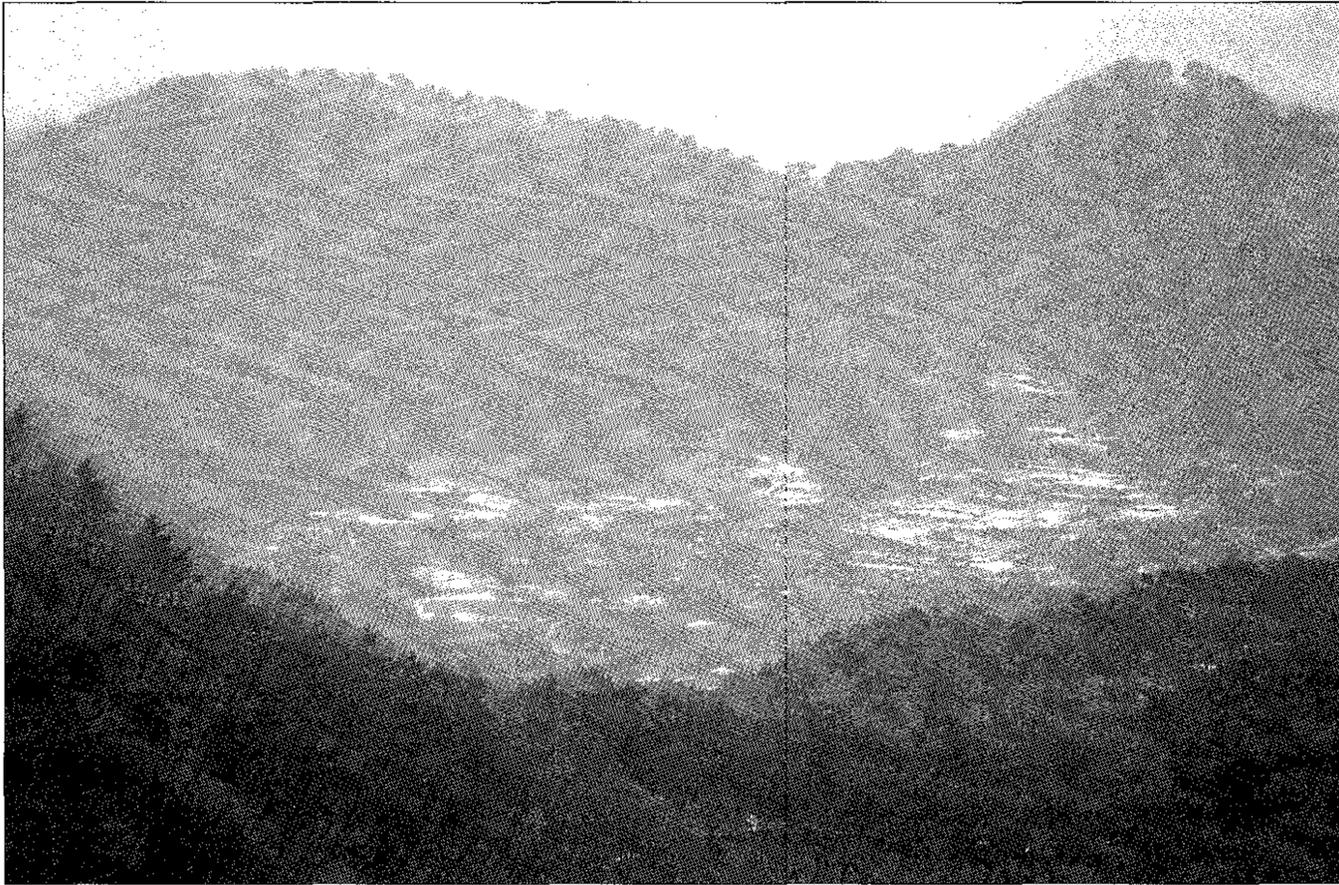
광해군 대에도 남한산성의 수축론이 대두되었다. 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양남의 군병은 강도(강화도)를, 공흥도(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을, 경기·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북한산성)과 파주산성(봉서산성)을 지키게' 할 정도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중정남한지』에는 광해군 13년(1621)에 남한을 비로소 보장지지(保障之地)로 삼아 산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시작된 산성수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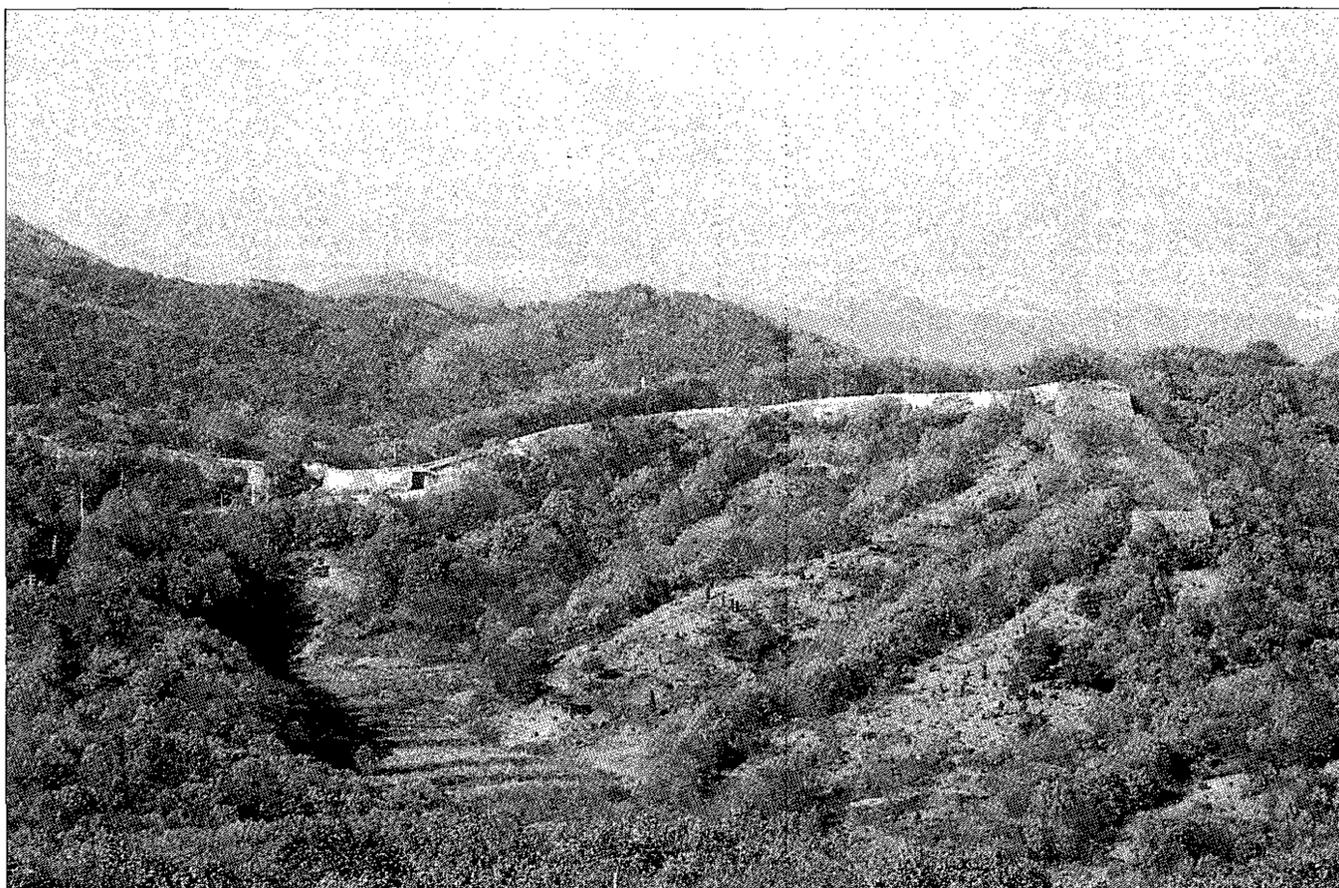
남한산성 수축

그러나 남한산성 수축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인조대이다. 인조반정(1623)이후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광해군대의 중립외교를 포기하고 친명배금(親明排金)으로 외교정책을 바꾸었다. 이것은 후금(後金)을 자극시켰고, 이에 따라 서북지역 방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인조 2년(1624) 정월 '이괄(李适)의 난'이 발생하여 왕실을 공주로 옮기는 급박한 사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도성을 방어하고 유사시 왕실의 피난처로서 적합한 장소로서 남한산성의 수축은 더욱 현안문제로 떠올랐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부제학 정경세(鄭經世), 특진관 이귀(李貴) 등이 산성수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동년 4월 심기원(沈器遠)을 남한산성 차지당상(次知堂上)으로 임명하고, 남양부사 유림(柳琳)을 광주목사로



벌봉에서 본 성 내부



신남성에서 본 남쪽의 성벽

차출하여 남한산성의 수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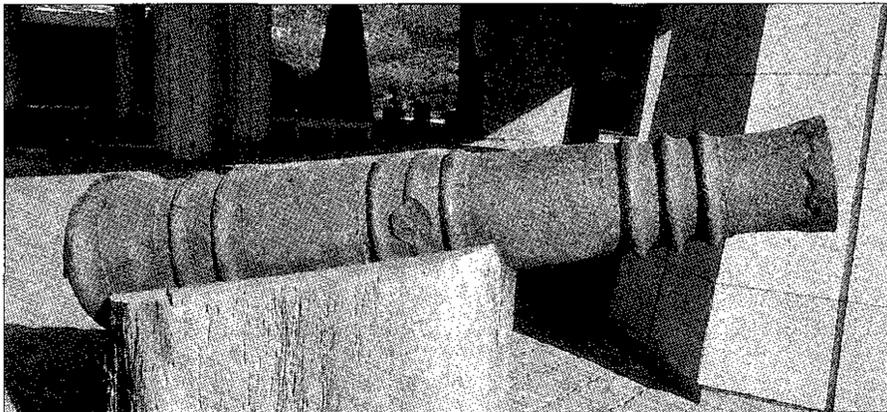
원성(元城)의 수축

옹성이나 외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인조대에 축성된 성벽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원성이라고 한다. 수어사 이서(李曙)는 원성을 축성함에 있어 동남성의 축조는 이회(李晦)에게 맡기고, 서북성은 벽암대사(碧岩大師)를 도총섭으로 임명하고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동남성은 지세가 험난하여 이회가 기일내에 성을 쌓지 못하자 이회가 공사비를 주색에 탕진한 때문이라고 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회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후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회가 성을 견고하게 쌓았음이 밝혀지자, 이회의 명예를 회복시킨 바 있다. 인조 2년 7월에 시작된 원성 수축공사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인조 4년(1626) 11월에 완공되었다.

당시 수축된 원성에 대하여 장유(張維)의 남한산성기(南漢山城記)에는 ‘여장 1,700첩, 대문 4개, 암문 8개, 사찰 7개와 관청창고 등을 갖추었다. 성벽의 동쪽에는 수문을 만들고 서북방의 연주봉에는 대를 세우고 용도(甬道)를 쌓아붙였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의 증개축

남한산성은 인조대에서 정조 3년(1779)에 이르기까지 근 150여 년간 10여 차례의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처음 수축된 산성은 활과 검을 주무기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 홍이포

하는 전근대적인 전쟁개념을 바탕에 두고 축성된 것이었다. 화포를 쏠 수 있는 포루는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설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화포라는 새로운 공성무기의 위력



▲ 봉암성에 설치된 포루
 ◀ 봉암성의 성벽

을 실감하게 된다. 청군은 원성 밖의 봉암과 한봉, 검단산 등을 장악하고, 성내를 들여다보면서 홍이포 등으로 화포공격을 하였다. 포탄은 6km 정도를 날아가 행궁 기둥을 맞추고 성내의 건물들을 무너뜨렸다. 이에 따라 이후의 축성방법은 적의 화포공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성벽의 요해처에 옹성을 구축하고, 곳곳에 포혈을 설치하였으며, 성돌도 크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아마도 인조 16년(1638)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원성에 대한 증개축과 함께 아마도 남옹성 3개가 신축되었으며, 연주봉옹성을 포함한 4개의 옹성에 포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12년(1686)에는 광주유수 윤지선(尹趾善)이 본성의 보강 차원에서 봉암성(峰岩城) 축조를 주장하였다. 원성 북동편에 있는 봉암은 해발 515.2m로 수어장대(497m)보다 높아 성안의 허실이 적에게 노출되어 화포 공격을 받았던 곳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어청 소속의 군병을 징발하여 50여일 동안 봉암성을 신축하였는데 들레 962보, 여첩(女堞) 294타, 암문 4곳, 군포 15곳이 설치되었다. 봉암성의 방어를 위하여 성내에 동림사(東林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동문밖의 백성으로 하여금 옮겨와 살도록 하였다.

봉암성 축조

또한 숙종 19년에는 수어사 오시복(吳始復)이 한봉외성(漢峯外城)을 신

한봉외성 신축



신남성에 수축된
서돈대

축하였다. 봉암성과 달리 한봉성은 폐곡선을 이루지 않고 용도(甬道)형태로 한봉 정상부까지 한줄로 성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은 계곡을 가로질러 동문까지 성을 연결시키기에는 공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계곡이 깊어 방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봉성의 둘레는 851보이고 여첩 227개, 암문이 1개였다. 이후 한봉성은 숙종 31년(1705) 청군이성의 일부를 헐어버렸으며, 영조 15년(1739) 수어사 조현명(趙顯命)이 둘레 895보, 여첩 272첩의 규모로 개축하였다.

숙종 31년(1705)에는 수어사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봉암성에 두개의 포루를 증축하였다. 포혈의 방향은 정확히 한봉의 정상부를 향하도록 하였으며, 장경사 원성부분에도 포루를 신축하여 장경사 옹성의 대포와 함께 협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방어력을 증강시켰다.

신남성 신축

또한 숙종 45년(1719)년에는 수어사 민진후(閔鎭厚)가 신남성(南格臺)을 신축하였다. 둘레는 743보, 여첩이 238첩이었으며, 포루 1개가 구축되었다. 영조 29년(1753)에는 돈대 2개소가 수축되었다. 신남성의 축성으로 인해 병자호란 당시 적에게 빼앗겨 산성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3개의 요해처에 대한 축성이 완료되었다.

정조대의 수축작업

쌓고 고치기를 거듭한 남한산성은 정조 3년(1779)의 대대적인 수축작업을 끝으로 축성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정조는 새로운 정치실현을 위하여

화성축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작업도 단행하고, 화성 능행과정에서 수차 남한산성 행궁에 들러 각종 성제를 정비하였다. 수축작업은 서명응(徐命應)이 수어사로 임명되어 실시하였는데 이때 기와로 하였던 여장을 벽돌로 덮었으며 4대문을 수축하고 이름을 정하였다.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 남문은 지화문(至和門), 북문은 전승문(全勝門)이라 하였다. 수축된 성의 안둘레는 6,290보이고 바깥둘레는 7,295보이며, 23,666척이 되었다. 여첩은 1,940타인데 모두 벽돌로 하였다. 4문에는 문루가 있고 옹성 넷에 암문이 아홉이며 사방에 장대를 세웠다.

한편 고종 1년(1864년) 간행된 『대동지지』에는 둘레가 6,297보이고, 남옹성 3개처와 연주봉 옹성, 장경사 옹성이 있으며, 4성문과 16암문이 있다고 하여 정조대의 수축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정조대 이후에도 약간의 개수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산성을 지킨 사람과 필요한 물자

산성 안의 사람들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거민과 군기 및 군량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그중에서도 산성거민의 확보는 산성방어를 위한 군사력 제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산성내에는 광주부에 소속된 각읍별 군사력이 있었지만 유사시 자구책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인력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광주부의 읍치를 산성내로 옮기고, 부역과 세금면제(복호)를 조건으로 입거민을 모아들였다. 이러한 정책은 곧 큰 효과를 거두어 산성 내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숙종 17년(1691)에 이르면 신역을 피하기 위해 모여든 가구수가 1천호에 달하게 되어 산성내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더 이상 새로운 거민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이다. 산성내의 인구증가는 이후 안정권에

접어 들게 된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광주부읍지』를 보면 산성안의 호구수는 1,088호에 인구는 4,047명이며, 그중 산성내의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의 수는 68명이었다.

모민정책 그러나 이러한 모민정책(募民政策)으로 입거민의 수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1,000여호를 수용하기에는 산성이 협소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옹기를 구어 팔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생계대책을 세우고 심지어 환곡까지 대여해 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많은 주민들이 환곡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산성내의 군량미 부족사태까지 벌어지곤 하였다.

성을 지키고 보수할 인력 확보

남한산성의 수어와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남한산성의 경우 특히 승군(僧軍)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축성시점부터 총섭(總攝)의 주관 아래 각도의 향승을 상변하여 입역하도록 하였다.

성내에는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어 기존에 있던 망월사와 옥정사와 함께 4장대의 좌우에 배치하고 개원사에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승군을 총괄하게 하였다. 『남한지』에 기록된 승군의 편제를 보면 승군총섭 1명, 승중군 1명, 교련관 1명, 초관(哨官) 3명, 기패관(旗牌官) 1명, 원거승군(原居僧軍) 138명, 지방승군 중 교대로 상변하는 의승(義僧) 356명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 제도는 수축시점부터 갑오경장 이후 승번제가 폐지될 때까지 270여 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경기도 소속 각 읍의 군병들을 남한산성에 예속시켜 남한산성의 입방군(入防軍)으로 편성하였다. 인조 14년(1636) 7월 당시 남한산성의 입방군은 1만 2,700명이었다. 이러한 입방군은 각각 산성의 담당 구역을 지켰다. 각부의 신지(信地) 구역을 보면 광주판관은 전영장으로 남장대를 맡았으며, 양주목사는 중영장으로 북장대를, 죽산부사는 후영장으로 동장대봉암성을, 여주목사는 우부별장으로 동장대를, 이천부사는 우부별장으로 서장대의 방어를 담당하여 평상시에는 조련과 산성보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입방군

또한 군사력 증강을 위한 훈련은 매년 봄, 가을 각 영별로 개별적인 훈련을 한 뒤 3년 마다 5영이 합동훈련을 전개하였으며, 본영 초관들을 대상으로 매월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1년에 한번은 성 안의 모든 거민들에게 현상금 100냥을 걸고 사격대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량미의 조달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에 있어 군량미의 조달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였다.

군량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책이 논의되었고, 결국 광주의 전결에서 징수한 전세(田稅), 삼수량(三手糧 : 삼수군의 군비충당을 위한 특별세), 모병량(毛兵糧) 및 선혜청에 납부할 대동미를 충당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인조 3년 8월 선혜청이 광주의 대동미 가운데 미수미(未收米)를 산성에 저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인조4년 광주 지역의 2,000여 결에서 거둬들일 전세, 삼수량, 모병량과 선혜청 대동미를 남한산성에 비축하여 군량미를 모았다. 이후 광주전결세만으로는 산성을 경영하기에 벅찬 상태에 이르자, 어염의 판매와 성동둔·율목둔·오포둔·송파둔 등의 둔전경영과 모미(耗米)·쇄마세·군역·송파창수세목(松坡倉收稅木)·송파장 장세(場稅)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였다.

군량미 확보

다양한 군물(軍物)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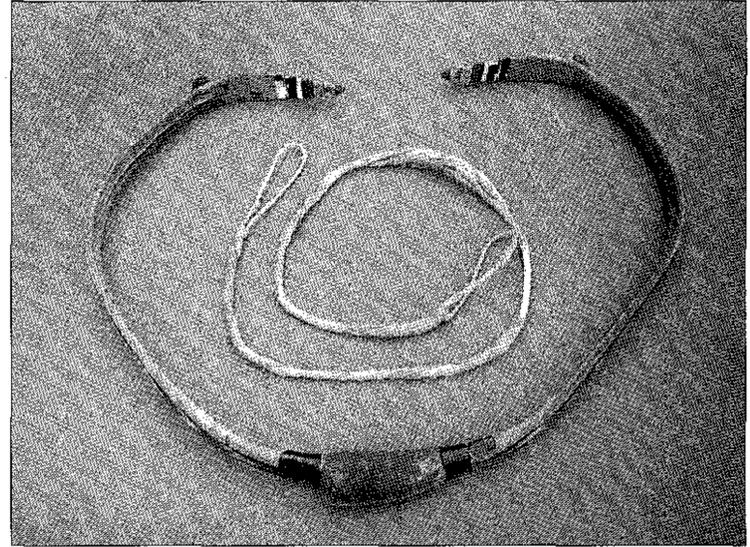
산성내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많은 양의 곡식과 군비를 저장하였다. 『남한지』에는 산성내의 군비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물(軍物)로는 수기(手旗)와 사령기(司令旗)등 군령깃발과 부속기구들이 64건이 있었으며, 단갑, 철갑(鐵甲) 피갑(皮甲) 등 각양 갑옷 601부와 투구 1,228부가 있었다. 또한 각양 군복이 2,355령이고 건립(巾笠)이 191쌍이며, 각색 깃발은 2,138면이 있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북이 25좌, 나팔 103척 등 군악용 고각류(鼓角類)가 444건이며, 우의147건, 성타등(城堞燈)

군물

1,000좌 등 등축류 1만 9,269건
과 군막류 1,608건이 있었다.

군기 군기(軍器)는 흑각궁(黑角
弓) 4,115장과 궁노기(弓弩機)
138좌 등 활 1만 4,775장과 화
살 2만 8,404부 49개(화살 1부
는 100개)였다. 또한 대도창
(大刀槍) 500자루와 환도
5,123자루 등 창이 2,793자루



군기 중의 하나인 각궁

이고, 환도(環刀)가 1만 585자루였다. 화포류로는 철대완구(鐵大碗口) 4좌
와 수철현자포(水鐵玄字砲) 26문, 조총(鳥銃) 4만 922자루 등 각종 화포류
가 4만 7,485건이 있었다. 화약과 탄환류로는 대소연환(鉛丸)이 2,546,375개
가 있었으며, 이약통(耳藥桶)이 6,721개와 각종 화약류와 화약심 등이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미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개인 병기는 활과
칼에서 조총이나 화포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마름쇠와 우
각, 우근, 저울, 편근 등 다양한 물품이 있었다.

군수물자 군수(軍需)물자로 군량미의 총량은 9만 274석에 달하였는데 환곡미수 등
으로 숙종 4년(1663)에는 2만 2,950석이 남아있었다. 화폐는 황금 5냥, 은자



서문 부근의
솔구덩이

23,270냥, 천은 783냥, 정은 22,486냥 등이 있었으며, 마포(麻布)류는 60동 정도가 있었다. 그외에 간장 1,627독이 있었고, 불에 구운 소금 3만 589덩이를 각처에 쌓아두었고, 숯 2만 4,192석은 94개 처에 묻어놓았다.

성곽과 각종 문

성곽시설과 규모

『남한지』에는 남한산성의 규모에 대해 성벽 안둘레는 6,290보로 17리반이며 바깥둘레는 7,295보로 20리 95보이며, 성가퀴는 1,940타이고, 5옹성과, 16개의 암문, 125개의 軍鋪, 4개의 장대가 있다고 하였다. 성벽의 둘레를 주척으로 환산하면 안둘레는 8,114m 이고, 바깥둘레는 9,411m 정도이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의 규모와 면적에는 많은 이론이 있었다. 『성남시지』

남한산성 길이 및 면적

명 칭	길이(m)	면적(m ²)	비 고
원성	7,545	2,126,637	인조 2년(1624)수축, 인조 16년(1638), 정조 3년(1779) 증개축
제1남옹성	426	2,381	인조 16년 추정
제2남옹성	318	3,583	
제3남옹성	125	839	
장경사신지옹성	159	1,447	
연주봉옹성	315	865	인조 2년(1624) 원성 수축시 축성
소 계	8,888	2,135,752	
봉암성	2,120	7,137	숙종 12년(1686) 신축, 숙종 31년(1705) 두개의 포루 증축
한봉성	1,093		숙종 19년(1693) 신축
소 계	3,213	7,137	
신남성 1돈대	134	1,381	숙종 45년(1719) 신남성 신축,
신남성 2돈대	121	998	영조 29년(1753) 신남성에 두 개의 돈대 구축
소 계	255	2,379	
합 계	12,356	2,145,268	

* 본 자료는 여장의 육개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하여 계측한 수평거리이다.

에는 8km 정도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1:5,000 지형도를 기본으로 한 GIS 측정 결과는 옹성을 포함하여 10,841.6m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한산성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토지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밀측량을 한 결과 남한산성의 전체 규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성벽의
전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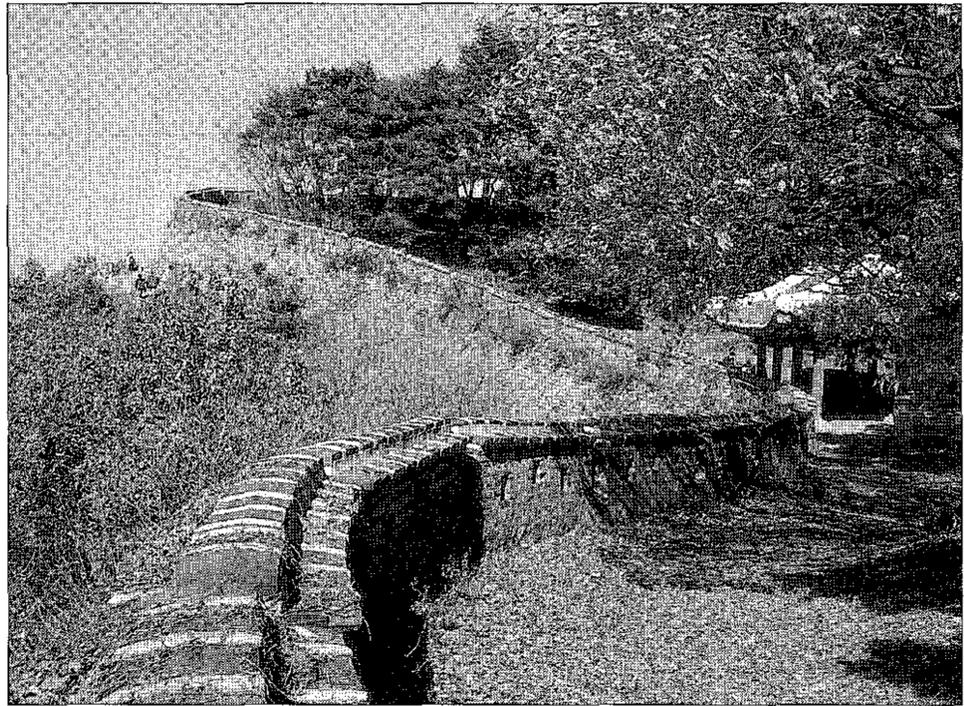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성벽의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은 성벽외곽 기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여장 안쪽 기저부, 여장옥개중심선 등 세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방법이 여장옥개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표조사에서도 여장 옥개중심선을 따라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속시설을 포함한 성벽의 전체 규모는 둘레가 12,356m이고, 폐곡선을 이루지 않는 한봉성을 제외한 성내부의 면적은 2,145,268㎡로 확인되었다. 그중 외성과 옹성을 제외한 원성의 규모는 둘레가 7,545m이고 성내부의 면적은 2,126,637㎡(643,307평)이다.

원성

축성방법

성벽의 높이는 낮은 곳이 3m 정도이고 높은 곳은 7m 내외인데 다른 성곽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그것은 이 산성이 조선시대에도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여러 차례 수축을 해왔고, 1971년 산성 전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수립의 보호와 성벽에 대한 보수작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장경사 부근과 동문남쪽사면의 성벽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3옹성 동쪽 일부 여장과 북문 동쪽에서 동장대에 이르는 구간의 여장과 성벽 일부 및 봉암성과 한봉성 거의 전역은 곳곳의 성벽이 무너지고 여장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성벽의 축성방법은 축성 및 개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조때에 축성한 원성의 경우 지반위에 잘 다듬은 장대석을 쌓고 사각추형의 성돌로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성돌은 지대석의 크기가 50×30cm이며 그 위로 33×22cm, 40×20cm, 43×18cm, 33×18cm, 32×20cm 50×19cm 정도의 네모서리를 정다듬질한 면석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뒤에는 잡석으로 뒷채움을 깊게 하였다. 성돌의 두께는 대체로 20cm 내외임을 알 수 있으며 폭은 30~



▲ 남한산성의 서벽

◀ 남한산성의 남벽

50cm로 두께와 폭의 비율은 1 : 1.5~2.3 정도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기의 석축산성에 사용된 성돌의 경우 두께가 대체로 15cm 내외이고, 두께가 폭의 비율이 1 : 3.2~4.8 정도임을 감안하면, 남한산성 성돌은 삼국시대의 성돌에 비해 두께는 커지고 폭은 좁아졌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인조 4년 축성 당시 원성의 일반적인 축성기법에 비해서 숙종대에 축성된 봉암성이나 한봉성 및 신남성의 축성기법이 전혀 다르다. 크기가 일정치 않은 방형 석재로 수평줄눈을 맞추지 않고 쌓고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는 방식이 많이 보인다. 봉암성 서벽의 경우를 보면 성돌의 크기가 65×55cm, 50×30cm, 53×29cm, 53×33cm, 35×55cm, 100×65cm 등으로 성돌의 크기가 커지고 두께대 폭의 비는 1 : 0.6~1.2로 정방형에 가까워지거나 폭에 비해 오히려 두께가 두꺼운 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조 때에 축성된 이후 숙종대에 이르면 축성기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거운 돌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사용되면서 축성의 용이성과 화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돌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각 성돌 사이에는 틈이 없이 서로 결합하는 면이 넓어지도록 함으로써 성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축성기법은 화성축성 시점에

봉암성과 한봉성
신남성의
축성기법

이르러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장(女牆)

여장은 체성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의 화살이나 총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한다. 이 여장은 다른 용어로 여담, 여첩, 치첩, 타, 여월이라고도 하고 고어로는 성각휘, 성가퀴, 살받이터 등으로 불려졌다. 또한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치폐, 첩담, 비예, 희장이라고도 하였다.

여장의 종류

여장의 종류에는 평여장과凸형여장, 반원형여장 등이 있다. 평여장은 타와 타 사이에 타구를 설치하고 크기가 일정한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의 여장은 모두 평여장이다. 여장의 경우 체성벽에 비하여 안정성이 떨어지고 붕괴되기 쉽다. 현재 남한산성의 경우 5.3km에 달하는 범위에 대하여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북문동쪽의 경우 여장의 중간부분 정도가 유실되었으며, 남문동쪽 제3옹성에서 동문에 이르는 구간도 상당부분 여장이 붕괴된 상태이다. 봉암성과 한봉성의 경우에는 거의 전체 성벽의 여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벽 여장의 단면 ▶

북벽의 여장 ▼



남한산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타의 길이는 대략 3~4.5m 정도이며 여장의 높이는 낮은 곳은 70cm, 높은 곳은 135cm 정도이다. 타구의 높이는 56cm로 대략 여장높이의 1/2 정도이다. 여장의 폭은 76cm 이고, 타와 타 사이의 간격은 15cm 정도이나 중앙부를 八형태로 뽕족하게 처리하여 좁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어의 효율성을 높였다.

1타의 길이

남한산성 여장은 급경사지역의 일부지역에서는 경사면의 중간에 단을 두어 계단과 같이 축조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을 두지 않고 바닥의 경사면과 평행하게 여장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여장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되어 방어의 효율성은 있지만, 양력이 아래로 쏠리게 되어 여장 축소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체성벽의 상단에 미석을 설치하고 여장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석은 체성벽에서 3치 정도 밖으로 돌출하도록 하였는데, 체성벽 맨 윗단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역할과 의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한산성의 경우 이러한 미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축성시 미석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석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성 여장의 경우 당초 벽돌로 축조하였으나 영조 20년(1744)에 벽돌을 제거하고 기와로 덮었으며, 정조 3년에는 다시 원성을 수축하면서 기와로 덮었던 것을 치우고 벽돌로 개축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여장은 대부분 전돌로 쌓은 것이며, 부분적으로 타와 타 사이의 타구에는 수키와를 한 장씩 올려 놓았다. 현존하는 여장을 보면 성벽의 정상부에 지대석을 놓고 그위에 20~30cm 정도의 활석으로 약 30cm 정도 허튼층 막쌓기 형태로 쌓고 그 윗부분에는 방전을 사용하여 쌓고, 내부에는 생석회 잡석다짐을 하였으며, 정상부에는 옥개전을 덮었다.

여장의 1타에는 3개의 총안이 설치되었다. 가운데에 근총안을 설치하고, 양쪽에는 원총안을 하나씩 설치하였다. 총안의 간격은 대략 96cm 정도이며, 총안의 크기는 폭22cm, 높이 24cm이며, 성벽외곽의 경사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총안의 경우 경사도가 38°, 원총안의 경우 2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외곽의 경사도가 높은 능선지점에는 여장의 총안 외에도 체성벽의 상단부에 별도의 총안을 설치하기도 하여

총안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의 성문(城門)

남문 성내에는 각 방향으로 하나씩 모두 4개의 대문이 있었다. 그중 남문은 성곽의 서남쪽에 위치한 출입문으로 4대문 중 유일하게 문루에 현판이 걸려 있으며, 정조 2년 성곽을 개보수할 때 개축하여 지화문(至和門)이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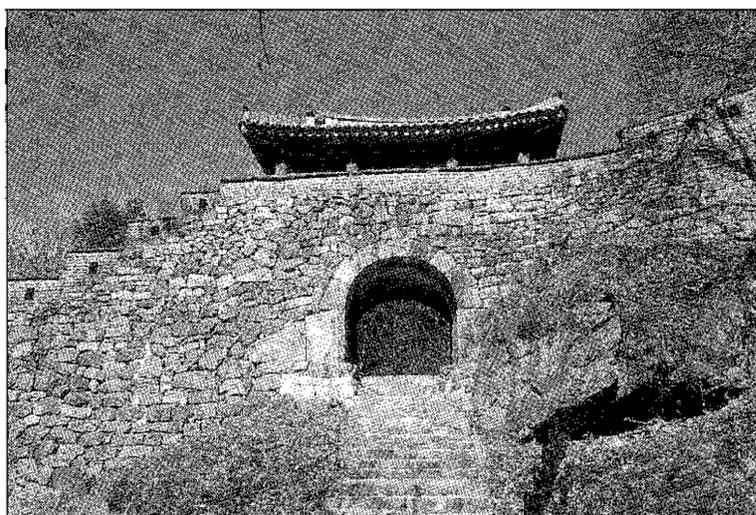
수축 당시 이회가 세웠다는 이 문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성안으로 들어온 문이며, 강화도로 가기 위하여 문을 나섰다가 추위로 인해 강화도행을 포기하고 다시 들어온 곳이기도 하다. 현재 홍예문을 비롯하여 문루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판목으로 만들어 철린을 입힌 성문에는 총구명도 남아 있다. 남문의 폭은 335cm이며 높이는 475cm인데 홍예기석위에 17개의 홍예석을 올려 반원형의 홍예문을 구축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4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에 용머리 망와로 마감하였으나 내림마루에는 망새 대신 용두를 장식하였다. 천장양식은 연등천정이고, 높이 110cm의 장초석에 올려놓은 기둥은 주심포식에 초익공의 포를 갖추었으며, 굴도리 가구이다. 남문은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으로 현재에도 관광객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동문 동문은 성곽의 동쪽에 위치한 출입문으로 광지원으로 향한다. 이 성문은 본성 축조 당시 축조된 성문으로 정조 2년(1778) 성곽을 개보수할 때 성문을 보수하고 좌익문(左翼門)이라 칭하였다. 성문은 홍예식이며 폭은 310cm, 높이는 400cm이다. 홍예는 9개의 홍예들을 쌓아서 구축하였으며, 홍예 안쪽에는 두께 12cm의 목제 판문(板門)을 달고 겉에는 가로 31cm, 세로 16cm의 철린(鐵鱗)을 붙여 보강하였다. 문 뒷면에는 가로 40cm, 세로 22cm의 장방형 홈을 파서 장군목을 걸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를 두른 팔작지붕 양식으로 용머리는 망와로 마감하고 문루의 천장은 연등천장을 하였다. 기둥양식은 주심포양식의 민흘림 기둥이며 그 위에는 굴도리 가구(架構)를 들렀다. 다른 문에 비해 가장 낮은 지대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성문은 지면에서 높여 계단을 구축하였는데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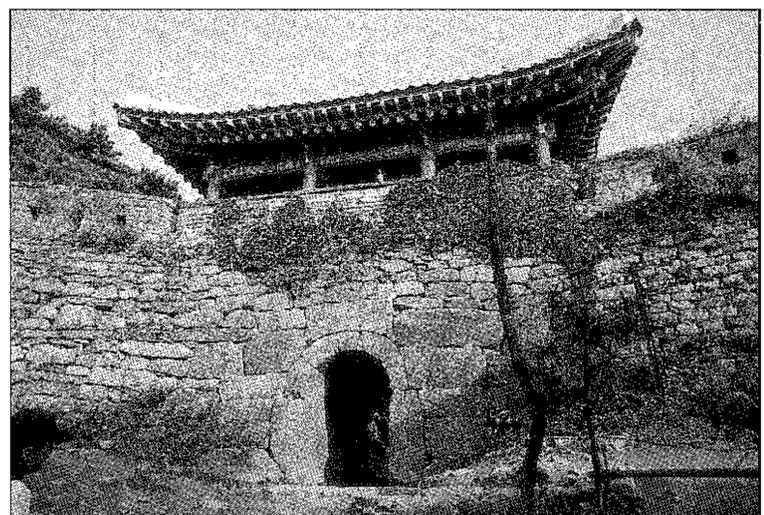
문의 서쪽 성곽은 1973년 남한산성-광지원간 8m 도로 확장공사로 성벽이 잘리어져 있다. 한편 동문 남서쪽 60m 지점에는 성내의 주 배수구였던 수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편으로 물길을 우회시켜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북문은 성곽의 북쪽의 해발 367m 지점에 있다. 북문을 나르면 계곡으로 난 길을 따라 하상사창리로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수운을 통하여 걷어들인 세곡을 등짐으로 운반하여 이 문을 통해 산성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정조2년 성곽을 개보수할 때 개축하여 전승문(全勝門)이라 칭하였다. 북문은 홍예식으로 홍예기석 위에 10개의 홍예돌로 구축하였다. 문의 폭은 325cm이며, 높이는 365cm이다. 홍예 안쪽에는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철린을 박아 보강하였다. 문루는 정면 4칸 측면2칸의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이다. 지붕의 용머리는 치미를 장식하였고 내림마루에도 용두로 장식하였다. 천장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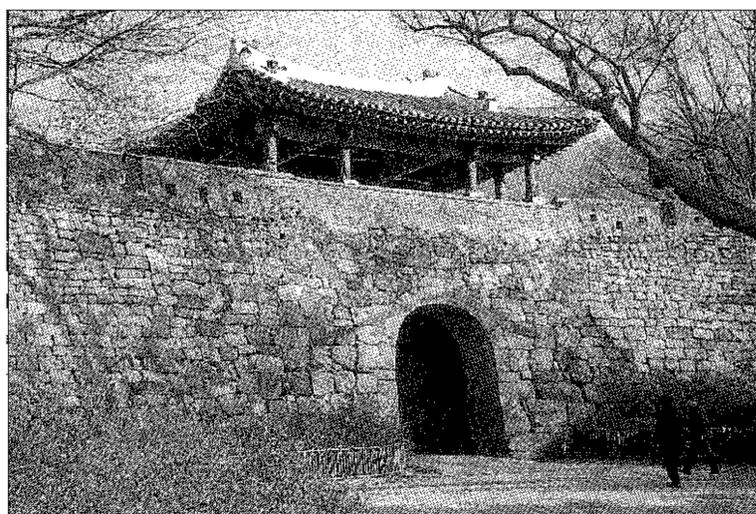
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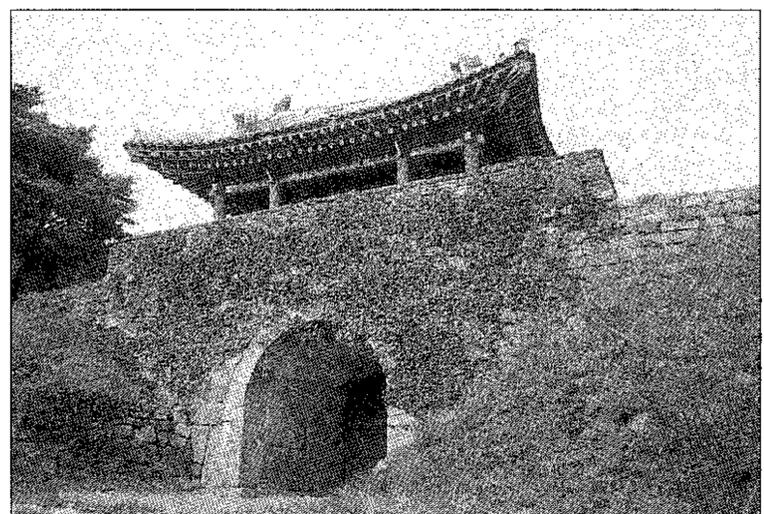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남한산성의 4대문

식은 연등천정이며 기둥양식은 주심포 양식의 민흘림 기둥이다. 다른 3문은 모두 개방하였으나 현재 북문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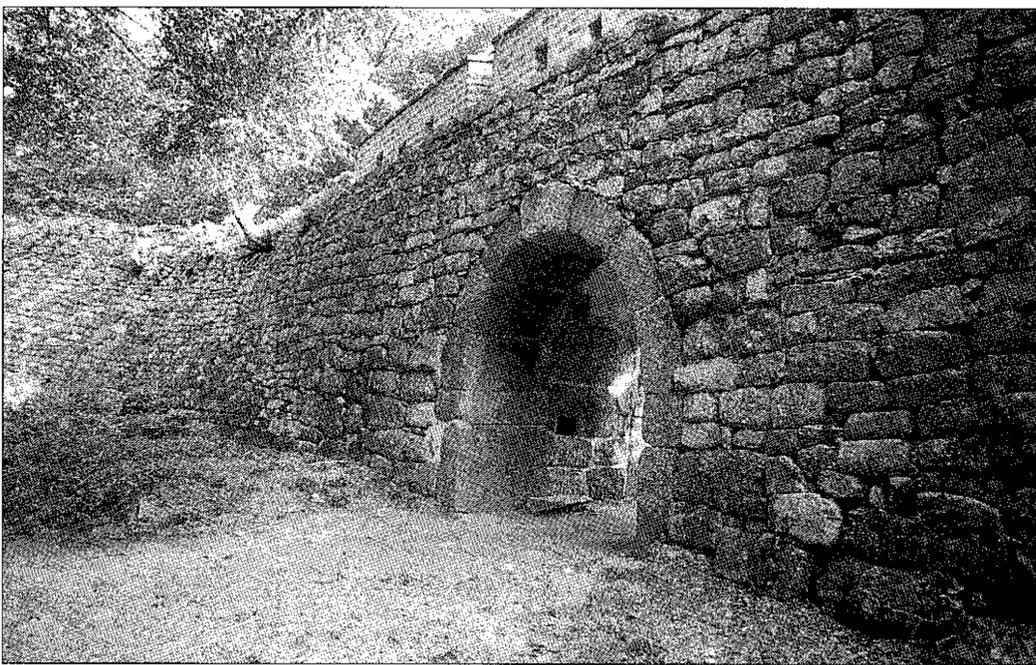
서문 서문은 산성의 북동쪽 모서리부분의 해발 450m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서쪽 사면의 경사가 급해 물자를 이송하기는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서문은 산성을 처음 축성할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3년(1799)에 개축하여 우익문(右翼門)이라 칭하였다. 개구부는 내외면이 반원형의 홍예식이다. 외면은 높이 210cm이고 폭은 146cm이다. 바닥에는 지대석을 깔고 양쪽에 50×40×130cm의 장방형 홍예기석(虹霓基石) 한매를 놓고 그 위에 5매의 홍예석을 올려놓았다. 외면 홍예 안쪽에는 2짝의 목재 판문(板門)을 설치하였다. 판문의 문짝의 크기는 85×210cm이며, 표면에는 20×33cm 크기의 방형 철엽을 4cm 정도 겹치도록 부착하였다. 대문을 지탱하는 문지두리는 석재로 위, 아래에서 지탱하도록 되어 있고, 양측벽에는 장군목을 끼워 빗장을 지를 수 있는 홈은 40×20×35cm의 장방형 홈을 파놓았다. 대문 안쪽의 천장부는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어 전돌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안쪽의 홍예는 높이 227cm, 폭 210cm이며, 측벽부는 114×103cm 정도의 장대석으로 두단을 쌓았으며 높이 170cm 이상부터는 전으로 쌓았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문루의 처마는 겹처마를 두르고 누대의 용마루는 치미를 올려 장식하였으며, 루의 천장양식은 연등천정에 일부에 우물천정을 병용하였다. 기둥양식은 주심포(柱心包)에 2출목 익공식 포를 장식하였다.

암문(暗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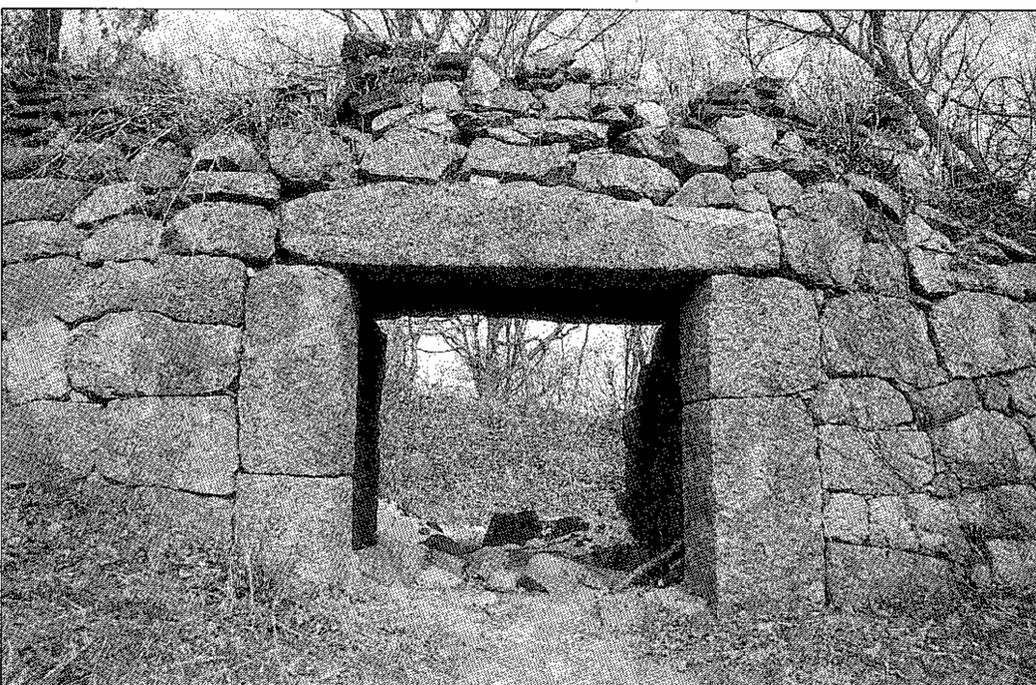
암문은 적으로부터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은 은밀한 곳에 일반 성문보다 작게 설치한 성문의 일종이다. 암문은 이름 그대로 비밀스러운 통로이기 때문에 출입문 위에 문루나 육축(陸築) 등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시설을 하지도 않았다. 암문의 기능은 성내에 필요한 병기, 식량 등 항쟁물자를 운반하고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구원요청은 물론 원병을 받고 역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암문은 평지성 보다는 산성에 축



제1암문



제3암문



제15암문

남한산성의 암문 모습

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형적으로 설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암문은 성의 방어와 관련된 주요한 시설인 만큼 삼국시대부터 축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의 기본적인 구조물로서 자리잡은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보인다. 암문의 숫자는 성의 규모에 비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형적인 여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암문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암문 만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암문 내측에 옹벽이나 흙을 쌓아서 유사시 옹벽을 무너뜨리거나 흙으로 메꾸어 암문을 폐쇄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16개의 암문

남한산성은 현재 남아 있는 암문이 모두 16개로서 우리나라의 성 중에서 암문이 가장 많은 성에 속한다. 그중 원성에 11개가 있고, 봉암성에 4개, 한봉성에 1개가 있다. 원성에 있는 11개의 암문은 남쪽에 4개, 동쪽에 2개, 북쪽에 3개, 서쪽에 1개가 분포되어 있다. 암문의 구조는 대체로 평거식(平據式)과 홍예식(虹霓式)으로 구분되는데 남한산성의 암문은 16개의 암문중 6개는 평거식이며, 나머지 10개는 홍예식이다. 평거식 중 3개는 봉암성에 설치되고 1개는 한봉성에 설치되었으며, 원성에 설치된 암문은 장경사용성으로 나가는 곳에 설치된 2암문과, 수어장대 서남쪽에 있는 제6암문의 2개만 평거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홍예식이다.

암문의 규모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크기가 매우 달랐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산성 동쪽 수구문 남쪽 20m 지점에 있는 11암문으로 암문의 폭은 286cm이고 높이는 307cm에 달하여 성문에 가까울 정도의 크기이다. 반면 가장 작은 암문은 수어장대 남서쪽의 6암문으로 폭은 77cm이고 높이는 155cm에 불과해 성인 1명이 지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수구문(水口門)과 수구

남한산성은 해발 370~400m 정도의 산능선을 따라 축성되어 있고, 분지 형태의 성내부는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에 가깝다. 산성내에 80개의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하였다. 성내에는 크게 네 개의 개울이 있었다. 국청사, 천주사, 개원사, 옥정사 부근의 계곡에서 각각

흘러내린 물이 지수당 부근에서 합류되어 동벽에 구축된 수구문을 통하여 성밖으로 흐른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이 개울물로 물레방아 8개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수구문

수구문은 동문에서 서남쪽 70m 지점의 해발 300m 지점에 위치한다. 수구문은 110×50×157cm 정도의 대형 암괴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양측 벽에 2단, 또는 3단으로 쌓았으며, 강회몰탈을 빈공간에 채워넣었다. 천장은 180×80×115cm 정도의 대형 암괴 4매를 덮어서 구축하였다. 수구의 폭은 188cm이고 높이는 205cm로서 산성내의 일반적인 암문의 크기보다 더 크다. 수구문의 바닥에 깔린 돌에는 폭 23cm 정도 간격으로 직경 9~12cm, 길치 6~9cm 정도의 구멍이 파여 있고, 천장석에도 직경 7cm, 깊이 9cm 정도의 홈이 파여 있는데, 철심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구문을 통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을 가로질러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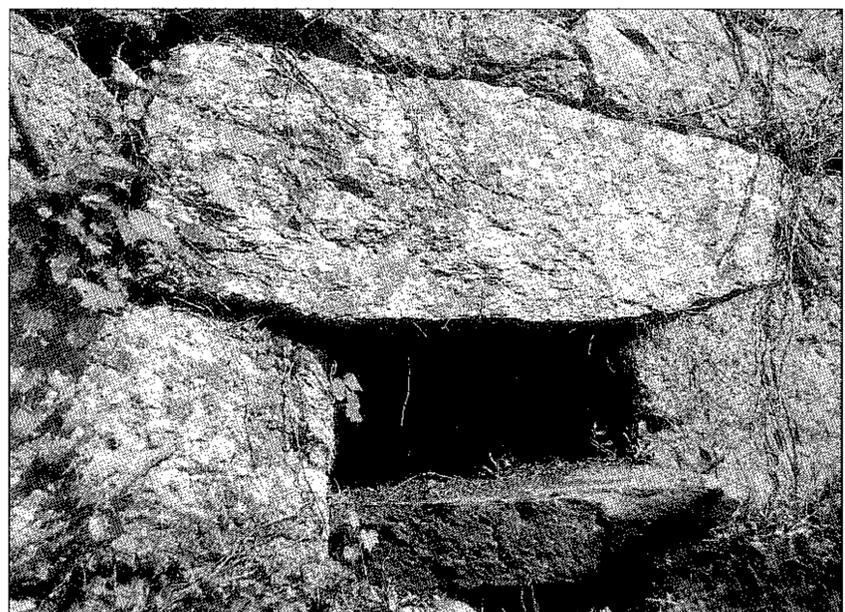
그외에 성내에는 축성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우수가 모이게 되는 지점에는 별도로 작은 수구를 설치하여 성벽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성벽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였다. 산성내에는 현재 성벽이 무너져서 확인이 어려운 지점을 제외하고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수구는 모두 28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수구는 낮은 곳으로 모여든 물을 성밖으로 배출하였기 때문에

수구



◀ 봉암성의 수구

▼ 신암성의 수구



배수구의 위치는 성벽의 바닥인 경우가 많지만 산성의 경우 성곽 안팎의 고저차로 인하여 외면에서 볼 때 출수구의 위치가 성벽의 중간에 있는 경우도 많다. 남한산성의 경우도 출수구의 위치가 바닥에서 100~150cm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2m가 넘는 것도 있다.

수구의 형태를 보면 바닥돌은 폭 80cm, 두께 20cm, 길이 1m 내외의 판석을 끝부분을 타원형이 되도록 다듬은 다음 채성벽에서 약 30cm 정도 돌출시켜놓고, 그 위에 양측면의 바닥돌의 안쪽으로 10cm 정도 물리도록 1매, 또는 2매의 성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횡방향으로 길게 뚜껑돌을 올려놓아 마무리하였다. 출수구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폭 35cm 정도에 높이는 20cm 정도이다. 수구의 횡단면 형태는 대략 장방형에 가까우며, 종단면은 바닥돌이 자연스런 경사를 이루어 성안으로 관통되며 층단쌓기를 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벽의 안쪽의 입수시설이 확인되는 곳은 복원공사를 시행한 동벽의 2개소와 수어장대부분의 1개소인데 납작한 판석으로 사방 50cm 정도의 돌곽을 쌓고 그 안에 1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넣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산성의 방어시설

옹성(壘城)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또 한겹의 성벽을 둘러쌓아 이중으로 쌓은 성벽을 말한다. 성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옹성을 먼저 통과해야만 하고, 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성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3면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5개의 옹성이 있지만 성문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옹성이라기보다는 치(雉)나 용도(甬道)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지지자료에 이것들을 옹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음을 볼 때, 옹성의 개념은 단순히 성문을 보호하



2남옹성



3남옹성

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체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이중으로 성벽을 구축한 시설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옹성은 남쪽에 3개, 동쪽과 북쪽에 각각 1개씩 설치되었다. 남쪽에 가장 많은 옹성이 설치된 것은 북쪽이나 동쪽, 서쪽에 비해 남쪽의 경사가 가장 완만하여 방어에 취약하여 검복리 방면에서 계곡의 완경사면을 따라 올라와 해발 534.7m인 검단산 정상을 확보하거나 계곡에서 화포를 쏠 경우 산성의 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옹성은 모두 능선으로 연결되어 방어에 취약한 지점에 축조하였다. 치성과는 달리 모두 체성과 직접적인 연결됨이 없이 체성벽의 기저부를 옹성

의 상단으로 하여 축조하였고, 암문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옹성의 말단부에는 포루를 설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옹성들은 연주봉옹성을 제외하고 원성축조 시에 쌓은 것이 아니라 병자호란 이후에 적의 화포공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1남옹성 1남옹성(南甕城)은 둘레가 426m이며 옹성 끝에는 7개의 포루가 설치되어 있다. 원성(元城)과 연결되는 시축지점(始築地點)은 약간 넓게 벌어졌다가 가운데는 잘록하고 끝부분은 다시 넓어져 뿔뿔하며 옹성 중간 부분

2남옹성 에는 장대가 구축되어 있다. 2남옹성은 둘레가 318m이며 옹성 끝에 87개의 여장이 있었다. 이성은 다른 옹성과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옹성 끝에는 포루(砲壘)가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홍예문이 있

3남옹성 다. 포루는 동서남 3방향으로 3개씩 9개가 설치되어 있다. 3남옹성은 시축 부분에서 축조가 끝나는 부분의 양쪽 벽이 거의 평행이다. 둘레는 125m이고, 31개의 여담이 있었다. 끝부분에는 5개의 포루가 남쪽에 3개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 옹성의 포혈은 방형(方形)이 아니라,凸자 모양으로 구축된 것이 특이하다.

장경사신지옹성 다음으로 장경사신지옹성(長慶寺信地甕城)은 159m 여장이 40개였다. 옹성 끝에는 2개소의 포루가 구축되었다. 포루의 좌측 벽에는 이방(耳房)이라 불리는 무기나 화약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었다.

연주봉옹성 연주봉옹성(連珠峰甕城)은 둘레는 315m에 73개의 여담이 있었다. 이 옹성에도 포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인되지는 않는다. 암문을 통하여 성내로 출입할 수 있었으며, 옹성의 끝부분에는 원형의 석축구조물이 있다.

치(雉)

치는 성벽의 일부를 치는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성곽 시설물 중의 하나이다.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축성론(築城論)을 보면

‘성이면서 치가 없으면 비록 한 사람이 타 하나씩을 지킨다 하더라도 타

사이에 방패를 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화살을 막기 때문에, 적이 성 밑으로 붙는 것을 발견하여 막아내지 못한다. 『기효신서(紀效新書)』에는 50타마다 치 하나씩 설치하는데 바깥로 2·3장쯤 나가게 한다. 치는 50타씩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양쪽으로 보아 가면서 발사하기에 편리하며 적이 성 밑으로 붙어 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치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기효신서

치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성의 경우에는 지형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굴곡을 이루게 되어 별도의 치가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도 치가 거의 필요없을 정도로 성벽의 굴곡이 심하고, 특히 암문은 성벽이 능선을 따라 회절하는 곳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다.

봉암성치

원성의 경우 1남옹성과 3남옹성, 연주봉옹성 부분에는 폭 12m 길이 3m 하단부의 폭이 3m 정도 되도록 돌출시켜 치를 구축하였다. 축성기법을 보면 체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치의 바깥쪽에는 옹성이 돌아가고 있어 이 치의 존재는 보통 간과되고 있으나 비교적 다른 옹성보다 늦게 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경사옹성의 경우를 보면 체성벽에 이러한 치가 없는 것을 볼 때 원성축조 시에는 연주봉옹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치만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암성치

원성에 설치된 4개의 치 외에 봉암성에서 한봉성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평탄지역에도 치가 설치되어 동쪽의 환경사면과, 한봉성의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은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봉암성 치는 곡성을 이루듯이 자연스런 굴곡을 이루는 성벽에서 장방형으로 돌출시켜 쌓았다. 길이는 11.5m 이고 폭은 10m 이며, 체성벽의 높이는 320cm 정도이다. 모서리부분의 결구상 태로 보아 이 치성은 봉암성의 축조시에 함께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장대(將臺)

장대는 전투시 지휘가 용이한 지점에 축조한 장수의 지휘처소를 말한다. 장대는 성내의 지형중 가장 높고,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다. 성이 넓어 한곳의 장대에서 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 각 방면에다 장대를 마련하였다. 장대는 전투시에는 지휘소인 반면 평상시에는 성의 관리와 행정기능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성의 장대는 규모가 크지 않은 단층형식이 대부분이나 남한산성이나 수원 화성의 경우처럼 중층 누각형태의 장대도 있다.

남한산성에는 동, 서, 남, 북 각 방면에 각각 하나씩 4개의 장대와 봉암성에 외동장대를 설치하여 5개의 장대가 있었다. 그런데 17세기 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영남대박물관소장의 「남한산성도」를 보면 당시에 동장대와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에 각각 단층누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외동장대는 누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각 장대의 위치만 표기되어 있을뿐 누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5장대의 누각이 모두 붕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영조 27년(1751) 부윤 이기진이 서장대에 무망루(無忘樓)를 건립하고, 정조 12년(1788) 부윤 이태영이 남장대에 타운루(唾雲樓)를 건립하였다는 『남한지』의 기록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세기 초중기에 제작된 지도라고 생각되는 정신문화연구원 소장의 「남한산성도」에 보면 서장대와 남장대만이 이층 누각형태의 건물이 있었을뿐, 북장대와 동장대, 그리고 외동장대는 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의 「광주부

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남한산성에 구축된 5장대중 동장대를 제외한 4장대는 17세기 말엽까지는 단층 누각건물의 형태로 남아있었으나,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5장대 모두 붕괴되어 터만 남아있게 되었다. 18세기 중후반에는 서장대와 남장대가 2층 누각형태로 건립되어 19세기 후반까지 남아 있었으며, 그중 서장대인 수어장대만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부에 세워져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건물은 남한산성의 지휘 및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어진 누각이다.

수어장대

성내에 현존하는 건물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며, 2층 누각과 건물의 왼쪽에 2동의 사당인 청량당으로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선조 28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동남북의 3개 장대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유일하게 현존한다. 원래 단층누각으로 축조하고 '서장대'라 부르던 것을 영조 27년(1751)에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이층누각으로 증축하고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 바깥쪽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라는 편액을 내걸었으며, 서대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이천부사가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우부별장이 되어 지킨 곳이다. 주말이면 수만의 인파가 몰리고 남한산성을 대표하



일제강점기 당시
수어장대

는 문화 유산이다.

남장대 남장대는 남한산성 남쪽 제2옹성의 바로 안쪽에 있었던 장대로 주변 지형을 보더라도 장대가 위치할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어청에 소속된 5명 중 후영장(後營將)이 배치되어 진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곳이다.

장대 위에는 1788년 부윤 이태영이 세운 타운루(唾雲樓)가 있었으나, 지금은 등글게 잘 다듬어진 21개의 주춧돌만 남아있다. 주춧돌은 높이 31cm 내외의 원형 고주초석으로 직경은 50cm 정도이고, 남-북향으로 놓여져 있으며, 한 변의 길이가 880cm인 정방형 건물이다. 성 내부로 향하는 건물터 뒤쪽에는 장대를 지을 때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석축이 남아 있다.

장대가 있는 이 지역은 성곽을 크게 돌출시켜 장대 앞의 면적을 넓히는 한편 수성의 효과를 크게 하였다. 특히 돌출된 성곽의 끝으로는 옹성을 설치하여 그 끝에는 포혈을 설치하여 수비하도록 하였다.

동장대 동장대는 동쪽 내성의 가장 높은 곳, 즉 한봉외성으로 나가는 암문의 우측 언덕에 있는 건물 터로 해발 498m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동서 21m, 남북 17m 정도 규모의 평탄지가 있으며 중앙에는 4개의 초석이 남아 있다. 장대의 외곽에는 높이 350cm 정도의 석축이 쌓여 있다.

수어청의 5명 중 전영장(前營將)과 좌영장(左營將)이 배치되어 진을 치



동장대 터

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곳이다. 건물 지에는 외편과 잡석이 흩어져 있으며 주변에 비교적 높이 쌓은 석축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곳은 숙종 때 외성이 확장되면서 외동장대와 함께 성곽의 동쪽에서 가장 높아 성곽 북쪽과 동쪽을 한눈에 감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성곽의 북쪽에 위치하며 연주봉과 성내를 연결하는 암문의 우측에 있었다. 수어청에 소속된 5명 중 중영장(中營將)에 배치되어 진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곳이다. 산성에 있었던 4장대 중 그 규모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훼손이 심한 편이다. 규모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주변의 잡석들 속에는 기단석과 파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동장대는 봉암성의 별봉 가기 전의 해발 498m 지점에 있다. 지상에 초석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약2m 정도의 축대만 무너진 채 남아있다. 외동장대는 후영장인 죽산부사가 군사 2,608명을 편성하여 지킨 곳이다.

외동장대

포루(砲壘)

임진왜란은 조선의 진법전술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래의 전술은 궁시류(弓矢類)에 의존하였지만, 조총과 화포의 위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 조선도 신무기인 조총과 화포를 주로 하고, 여기에 창검과 궁시가 보조하는 전술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성축조에도 대포를 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었으며, 축성기법도 화포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인조실록』에 보면 인조 9년(1631)7월 4일 인조가 이르기를

“남한산성에는 한 곳도 포루가 없으니 이것이 결점이다.”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포루는 성을 지키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장과 성위의 좁은 곳에 흙을 메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기에 이수일에게 그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왜란이 지난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화포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서는 남한산성에 포루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조선은 대포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남한지』의 내용을 보면 인조 14년 12월 23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호준포
홍이포

“적이 대포를 망월봉과 남성 맞은편봉우리에 설치하고 놓기 시작하였다. 이쪽에서는 신경진이 천자포를 놓게 하여 호장(胡將)과 군졸 수명을 맞추었다. 적이 또 대포 10여대를 남격대 밖에다 설치하였는데 호준포(虎蹲砲)라 하고, 또 홍이포(紅夷砲)라 하는 것인데 탄환이 큰 것은 사발만하고 적은 것도 거위알 만이나 하네 능히 수십리를 날 수 있으며, 매양 행궁을 향해 놓기를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다. 사창에 떨어진 것은 기와집을 세겹이나 꿰뚫어 땅속에 한자 남짓이나 들어 박혔고, 또 연하여 성첩을 맞추어 동성 한귀가 거의 파괴되어 여장엔 이미 가릴 것이 없게 되고 신경진과 군관과 사복의 관원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관향에 있던 空席 수백장에다 흙을 담아서 막고 물을 부어서 얼게 하여 이를 굳혔다.”

고 하여 당시의 호준포와 홍이포의 위력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대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병자호란 이후 대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병자호란이 끝난 2년 뒤인 인조 16년(1638)년 원성을 증개축하면서, 원성에 용성과 포루가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암성이나 한봉외성, 또는 신남성의 축조도 기본적으로 적이 화포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전술에 입각해서 축성하게 되었으며, 숙종 31년(1705) 봉암성에 두 개의 포루를 증축하는 등 화포공격을 할 수 있는 포루설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포를 쏠 수 있는 시설을 포루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를 대부분 포루(砲樓)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포루(砲樓)의 전형적인 모습은 화성에서 볼 수 있다. 화성의 포루는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치성과 유사하게 하면서 내부를 공심돈과 같이 비워 안에 화포를 감추어두었다가 적을 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에는 작은

누각식의 건물을 올렸다.

반면 『남한지』에는 포루(砲壘)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소장의 「남한산성도」와 규장각소장의 「광주부도」에서도 포루(砲壘)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포루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같을지라도 누각(樓閣)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외에 포루, 또는 포좌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남한산성에서는 문헌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포루는 모두 7개소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중 남옹성1에 8개, 남옹성2에 9개, 남옹성3에 5개, 장경사부근의 원성에 2개, 장경사신지옹성에 2개, 연주봉옹성, 그리고 봉암성에 2개가 설치되었다. 이중 모두 파괴되어 현재 전혀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연주봉옹성의 포루를 제외하면 각 포루의 수는 28개에 달한다.

포루는 체성벽의 안쪽에 폭 130cm, 높이 150cm 정도의 공간을 구축하고 성벽쪽에는 폭 50×50cm 정도의 구멍을 내어 포신을 걸칠수 있도록 포루를 만들었으며, 좌측이나 우측벽에는 작은 이방(耳房)을 구축하여 화약이나 무기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의 포루는 대부분 신남성 방향이나 한봉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사방의 산이 험준하여 적의 화포공격이 가능한 곳은 이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이다.